

EBN 프린터

'알뜰주유소·오피넷' 기름값 인하 효과 있었다

저가 경쟁유발 주변 주유소 가격 떨어트려
셀프주유소 증가 영향, 오피넷 서비스개선 목소리 나와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 2016-06-09 11:26



▲ 2011년 12월 문을 연 경기도 용인 알뜰주유소 1호점.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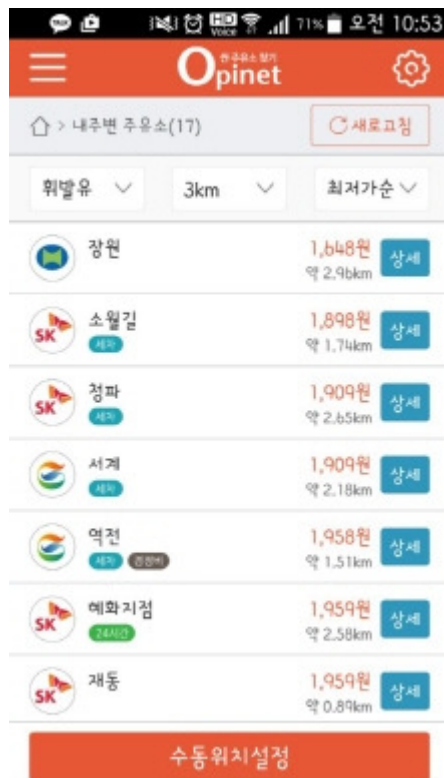
알뜰주유소와 기름값 정보사이트인 오피넷이 기름값 인하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오피넷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더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와 오피넷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넷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기름값 비교사이트이다. 이를 통해 각 주유소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석유공사는 오피넷을 통해 주유소 가격 비교가 쉬워짐에 따라 해당 주유소가 특정 전략이 없는 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알뜰주유소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정유사 간 경쟁까지 유도시켜 가격인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도 나타나 있다.



▲ 스마트폰에서 오피넷앱을 구동시킨 모습. ©EBN

에경연의 '알뜰주유소 진입에 따른 경쟁 주유소의 가격 반응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는 알뜰 진입 이전에 판매가격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각각 2000원, 1800원으로 가정하면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1개월 동안 경쟁주유소는 평균 휘발유 3.5원, 경유 3.7원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수익이 리터당 50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 경영 측면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지난 5월 4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풀별 평균판매가격은 휘발유 경우 SK에너지 1425.9원, GS칼텍스 1409.9원, 현대오일뱅크 1390.9원, 에쓰오일 1394.4원, 알뜰주유소 1368.7원, 자가상표 1380.4원이다. 알뜰주유소가 SK에너지보다 57.2원 저렴했다.

경유도 각각 1203.9원, 1187.7원, 1167원, 1167원, 1142.7원, 1151.7원을 기록해 알뜰주유소가 SK에너지보다 61.2원 저렴했다.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영향으로 주유소 저가 경쟁이 일어나면서 인건비가 적게 드는 셀프주유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2089개이며 이 가운데 SK에너지(SK네트웍스 포함) 3730개(31%), GS칼텍스 2547개(21%), 현대오일뱅크 2214개(18%), 에쓰오일 2082개(17%), 알뜰주유소 포함 무상표 1516개(13%)로 나타났다. 셀프주유소 수는 2177개로 전월 대비 21개, 전년 동기 대비 315개 증가했다.

일각에선 오피넷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한 운전자는 "스마트폰 오피넷앱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피넷은 가격정보만 제공하지 친절도와 같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